

"일제치하 제주도민 고통 실감"

일본 히로시마교직원조합·전교조 대구지부

입력 : 2008. 08.11. 00:00:00



▲일본 히로시마교직원조합과 전교조 대구지부 교직원들이 10일 제주를 찾아 어승생악 토치카와 가마오름 동굴진지를 둘러봤다. /사진=이승철기자 sclee@hallailbo.co.kr

어승생악 토치카·가마오름 동굴진지 둘러봐

일본 히로시마교직원조합과 전교조 대구지부 교직원들이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 군사시설을 답사하며 전쟁의 아픔을 인식하고 이를 역사교육 현장에 제대로 반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.

히로시마교직원조합 코바야카와 켄 집행위원장을 비롯 10여명의 초중등 교사들과 전교조제주지부 권영주 지부장 등은 10일 오후 제주를 찾아 어승생악 토치카 및 가마오름 동굴진지를 방문했다.

본보 일제전적지 특별취재팀 이윤형 팀장의 현장강의와 안내로 진행된 이날 답사에서 코바야카와 켄 위원장은 "일본제국주의가 일으킨 전쟁으로 도민을 비롯한 한국인들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를 실감했다"며 이를 교육현장에서 알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.

또 최근 일본내의 역사왜곡 움직임과 관련 "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하지 않고 있는

것에 대해 히로시마교직원조합이 우려하고 있다"며 "히로시마교직원조합과 대구지부와 공동역사교재를 만들어 한국과 일본 학생들이 역사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다"고 밝혔다.

양 지역의 교직원들은 11일에는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대 및 첫알오름 학살터와 성산일출봉 특공기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.

히로시마교직원조합은 '노동강좌-한국학습여행'이란 이름으로 매년 한국을 방문하여 일제 식민지 정책과 전후문제 등에 대한 현장학습을 하고 있다.

<저자권자 © 한라일보 (<http://www.ihalla.com>)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>